

보도설명자료 (‘14.5.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한-이스라엘 FTA, 통상인력 부족에 속도 못내나”
(‘14.5.22, 아주경제), “통상인력 과부하에 이스라엘
등 추가 FTA 난항” (‘14.5.22, 이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나라에 FTA 협상 개시 의지를 전달하였으나, 이를 담당할 국내 통상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올해 안으로는 협상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FTA 협상은 ‘13.6 발표된 新통상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협상 상대국은 해당 FTA의 경제적 이득, 정치·외교적 관계, 상대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
 - 또한 협상개시전 “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게 됨
-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전문인력 부족 문제로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가 외부충원(특허청 등)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임

※ 관련문의 : FTA정책기획과장 최진원(044-203-5740)